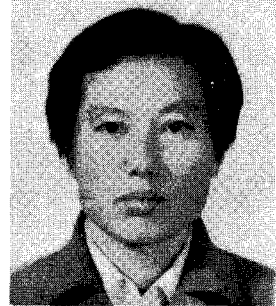


생산자와 상인들간의 유대강화로 서로의 권익을 보호받자

권 경 익

(한국육세남새조합장, 영남도계장 대표)



먼저 대망의 83년을 맞이하여 귀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새해를 맞아 양계업에 종사하는 양계인들과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의 바램이 곧 나의 바램과 같을 것이고 기간행물에 실린 의견보다 더 특색있게 고쳐 쓸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83년에 필자의 바램인 우리판매업계와 관계깊은 몇가지를 기술하고자 줄필을 들기로 하였다.

지난 10여년간 국민소득이 빠른속도로 성장하자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육류 소비도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별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것이면 수입역제 등 바라는 것이 많다.

첫째, 쇠고기수입이다. 국내 생산량으로는 모자라는 쇠고기를 수입해다가 그것도 짠 가격으로 국민 식탁에 공급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여기에는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치르고있는 돼지고기 및 육계가격의 폭락이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쇠고기대신 국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새로운 조리기술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한다면 이것이 곧 외화를 절약하는 길이 될 것이며 양계, 양돈 업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국내 육류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도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83년부터는 농가 부업소득의 범위를 넓혀

서 모든 축산농가의 조세부담을 덜어줘가면서 축산진흥에 힘쓰고 있지만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은 일로해서 양계업자들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당국의 시책에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소비가 없으면 생산이 필요없을 것이고 또 생산하지 않는다면 유통기구가 필요없을 것이다.

양계농가에서 생산된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 역할을 맡고있는 당사자가 바로 판매상인이다.

이러한 때에 놓을 수 없는 관계에있는 생산자와 상인간에는 항상 유대를 강화하여 생산자는 상인을, 상인은 생산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중 수급에 있어서 과잉생산이나 물량부족현상이 없도록하고 나아가서는 가격안정과 판로 편의를 위하여 수시로 상호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생산자와 판매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양계산업은 같은 축산물가운데서도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교해볼때 유통체계가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발전하고 판매업계가 발전하려면 유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유통구조가 확립되지 않고 생산자와 판매상인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않고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양계산업 발전

의 속도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열화가 가장 이상적인 유통구조라고 생각된다.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늦은감은 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발맞추어 이와같은체제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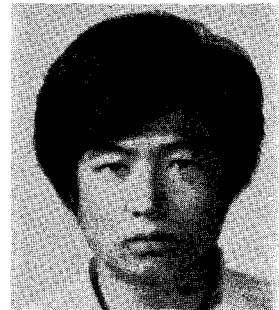
을 위한 초석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한가지 바랄 것은 올해는 농장에서 출하시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주시기를 전국 양계업자 여러분에게 부탁 드리는 바이다.

양계인 모두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 모두가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한 해가

김 창 수
(한협축산 영업부)



불안하기만 했던 한해가 ILT라는 질병이 적정수준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이제 새해를 맞아 이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가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모두의 의식구조부터 개선하자.

가격안정, 유통구조개선, 공동운명체로서의 협동 등 고질적인 우리업의 난제들은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아래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것 같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루 아침에 몇명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시일과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도박장에서 화투장을 쥐고 있는 기분으로 입추와 출하시기를 택하는 이런 불안한 생업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말인가. 이제는 아예 「우리업계는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된다는 생각을 버

리고 지도층이나 일반 양축가나 모든 사람들이 꼭 이루어야 하고 꼭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진정한 농부, 목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탕주의를 지양하자.

언제부터인가 우리업계에도 한탕주의가 번지고 있다. 물론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심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입출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업이 아닌 생업으로 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진실로 양계업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직업의식을 갖는 사람, 뜨내기나 바람잡이가 아닌 사람들로써 정착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각자의 적정규모를 감안하여 무리하지 않는 경영으로 사료효율이나 질병 등 사양관리와의 투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해야지 무리한 경영으로 한탕을 꾸미다가 도산하여 이리저리 도피하는 일은 필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편견과 고집을 버리자.

날로 변해가는 것은 우리업계도 마찬가지다.